

아홉째 주 ; 聖 化(SANCTIFICATION)

고후 7: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자

성경에서 성화를 지시하는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바로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고 하며, 옛사람을 벗어 버려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성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부분이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화의 정의>

성화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두 측면>

성화의 과정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의 해방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인격의 변화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차적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육과 옛사람은 무엇인가?>

아담이 타락한 후 우리에게 남겨준 타락한 형질을 육이라고 합니다. 육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무의탁성과 독립성을 말합니다. 이 육이 각 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성화의 목표 :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 >

아담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거기에 육과 옛사람만이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¹.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 :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 :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좃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성화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좃아 지식에 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²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창조시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롬 8:29 을 읽고)

바울은 또 말하길,

로마서 8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으로

우리가 창조시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고전 15:45)³이라 부르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상속해 준 옛사람을 벗어 버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¹. Calvin, CIR. Book I CHP 15 \$4 참조

². 4: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KJV)

4:23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NIV)

4: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³.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의 인성과 우리의 관련성>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초인이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 약해서 우시고, 피곤을 느끼셨으며, 우리의 연약한 점을 몸소 모두 체험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시며 당신의 거룩의 유지를 위해, 우리처럼 노력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 :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조시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따라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⁴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 :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⁴ 4: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KJV)

4:23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NIV)

4:24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성령의 은혜로 의롭게 된자, 거룩케 된자라고 말합니다.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I. 정의적 성화(DEFINITIVE SANCTIFICATION) :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다음 구절을 읽고 신약의 우리에게 생긴 현저한 변화 세가지를 찾아 내시오

로마서 6 : 2 그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7 :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²⁾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정의적 성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1. 정의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새사람은 죄와 율법이 다시는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죄가 죽어버린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와 절친한 연인 관계에 있던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으므로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대도 이빨빠진 사자입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빨빠진 사자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죄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그 반대 편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무(無, Nothing)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죄에 대해 옛사람이 죽어 새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는 이빨빠진 사자라는 것입니다.

2. 죄와 율법과 옛사람의 삼각 관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나요?

2.1 죄 :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옛사람 안에 거하며(내주하는 죄)

로마서 7 :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의 성질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2.2 율법 :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나

로마서 7 : 1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Wherefore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holy, and just, and good.

옛사람 안에서는

2.3 예사람 :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욕이 각 개인 안에서 인격화한 것으로,)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옛사람 안에서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

로마서 7 :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니, 죄의 정욕이 더 생기더라는 말이다. 이것은 죄가 율법을 도구로 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을 증진시킨다는 말이다.

(하던 일도 명석 같아 놓고 하라면 하질 않고, 남의 밥은 더 많아 보인다. 남의 산은 더 푸르러 보인다.)

죄와 율법과 옛사람의 협력 관계를 말해 보시오.

2. 4. 죄와 율법과 옛사람의 협력 관계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고 선하나,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 때문에,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7 :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And the commandment, which was ordained to life, I found to be unto death.

따라서 죄와 율법과 예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의 꼬리표가 달려 다니며, 이 삼각 관계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